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 연구

조영하* · 정주영**

초 록

본 연구는 남한으로 이주하여 정규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측정하고, 이를 남한청소년들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H특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재학생 142명 전원과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학생 42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시민의식을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의 7개 범주로 구성하였고,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은 지구공동체의식, 사회적 참여, 다문화의식에서 모두 양호한 인식수준을 보였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평등, 신뢰에서는 집단 간 인식수준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특히 신뢰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청소년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정부, 언론기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신뢰하는 반면, 남한청소년들은 아들에 대한 불신 수준이 상당히 높게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주제어: 지구시민의식, 탈북청소년, 구조방정식, 잠재평균분석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제1저자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술연구교수, 교신저자, deu1487@khu.ac.kr

I. 서 론

21세기 지구화시대의 도래는 근대 이후로 성립된 국민국가(the Nation-State)의 틀 안에서 이해하던 시민성, 시민의식 등의 정치적 개념 정의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가 등의 사회변동은 복수의 시민적 소속을 가능하게 하였다(전호윤, 2004; Buckner & Russel, 2013). 지구화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인종적 집단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은 한 국가에만 평생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구화시대의 도래, 단일민족국가의 경계 붕괴, 이주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민권이 출현하였고, 남북분단 등의 특수상황과 서로 맞물리면서 독특하고 복잡한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심성보, 2014: 185). 이렇듯,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사회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조차 이미 단일한 구조에서 다원화된 구조로 변환되었음(Myers, 2010)을 실감하게 한다.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21세기 학교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른 다원성을 관련 교과과정에 폭넓게 반영하여왔고, 이는 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 형성과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왔다(Myers, 2010). 근대 이래로 학교는 청소년들이 지역과 국가의 다양한 정치적 공동체에서 수용되는 올바른 시민성을 기르는 배지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하여왔고, 지구화시대가 전개되면서부터는 지구시민의 이상을 심고 기르는 토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맡아오고 있다(Schattle, 2008: 76). 특히 이주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해 새로 정착한 국가의 영토적 경계 안팎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시민적 쟁점이나 현안들을 다원적 관점에서 지각·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이들의 신념, 규범적 이해, 가치, 태도, 행동 등을 발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전호윤, 2004; Abowitz & Harnish, 2006; Cho & Chi, 2014).

지난 10년 간 탈북청소년들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들의 학교교육이 수비율도 증가해온 경향을 볼 때 남한사회로 이주한 탈북청소년들¹⁾을 대상으로 한

1)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 연령기의 집단을 이룬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제 3조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

지구시민의식연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남북분단 이래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40여 년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은 13명에 불과하였으나(은지현, 조영하, 2015), 2014년 현재 2,184명의 탈북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14).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양적 증가추세는 지구화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시민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을 담당하여야 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5년 난민을 위한 교육지원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의 신분에서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훗날 성장하여 새로운 정착지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이주 청소년들이 같은 처지의 동질집단과 새로 정착한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글로벌사회에도 기여하는 지구시민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학교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청소년들이 모두 난민의 법적 지위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난민의 법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탈북청소년들도 난민과 유사한 문화적응 과정을 겪는다(이기영,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난민기구의 위와 같은 권고는 우리의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들은 미래의 한국사회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구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사회의 시민적 규칙과 규범을 이해하고, 다양성, 다문화성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삶의 복잡성과 지구화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포용하며, 다문화이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남한의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연구

장 등을 두고 있는 자,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은 협의의 개념으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상식적으로 볼 때, 탈북청소년이란 미성년인 19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탈북청소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령과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까지의 청년들이 포함된다. 한편,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탈북청소년에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포함된다. 이들은 법률이 정의하는 협의의 북한이탈주민 개념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교육지원이 필요한 탈북가정의 자녀로 판단하고 있다(은지현, 조영하, 2015, p. 55~56).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남한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 수준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구시민의식

1) 지구시민의식의 개념

전통적 관점에서의 시민권은 한 사회의 정치적, 지리적 공동체 구성원로서 갖는 자격이나 신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 뿐만 아니라 공동체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한다. 통상 소속된 특정 국가사회의 틀 안에서 규정되는 시민의 법적 지위와 신분은 시민들에게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과한다(Howard, 2006). 그러나 지구사회의 통합, 경제적 의존성, 국제이동, 국경을 초월한 인권 등 지구사회공동의 관심들은 시민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급격히 바꿔놓았다. 이렇듯, 시민의 개념이 국가사회라는 틀로부터 초국적, 코즈모폴리턴, 탈국적 관점으로 이동·확대되면서, 각 국은 하나로 연결된 지구환경에 부합하는 시민, 즉 지구시민을 육성하고자 학교교육에 지구적 관점을 반영해오고 있다(Buckner & Russel, 2013). 여기서, 지구적 관점은 자신이 속한 특정 국가사회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포괄적인 지구공동체의 맥락에서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분쟁 등의 공동 문제들을 다룬다(Davies, 2006; Falk, 1993; Pigozzi, 2006).

그렇다면 지구시민의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Oxfam(1997)은 21세기 지구시민의 지구시민의식에 대하여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와 역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구시민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하여 알고, 지구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인지하며,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구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하여 분개하고, 지역에서부터 글로벌수

준까지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 및 공헌하며, 지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고,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을 일컫는다(p. 4)”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적 정의는 우리가 지구시민의식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21세기 지구화시대에 걸맞은 지구시민의식이란 도대체 자신의 실제 생활 장면이나 실천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외 학자들(김태준, 김안나, 김남희, 이병준, 한준, 2003; 지은림, 2007; Andrzejewski & Alessio, 1999; Morais & Ogden, 2011)은 지구시민의식의 개념이 보다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왔다. 특히 지은림(2007)은 지구시민의식에 대해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능력 중 하나인 시민의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포함하면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구공동체의 특성으로 다국적 태도, 지구공동체 의식, 국가정체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구시민의식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류보편의 공통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구시민의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지구시민의식의 범주와 구성요인

지구시민의식의 범주와 구성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ndrzejewski와 Alessio(1999: 7-8)는 지구시민의식을 크게 1) 타인, 타국,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2) 개인의 삶, 전문적 삶, 공공의 삶 측면에서의 윤리적 행동, 3) 지방, 국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과 기술로 범주화하였다. 여기서 타인, 타국,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민주적 가치, 권리와 의무, 참여민주주의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지방·국가·글로벌 차원의 이해를 강조한다. 개인의 삶, 전문적 삶, 공공의 삶 측면에서의 윤리적 행동은 국법과 국제법 및 시민권, 민주주의, 인권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시민적·윤리적 책임, 제도·공동체·국가사회의 철학적·문화적 가치, 시민의식·민주주의·다양성 존중, 인권·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정책 및 제도, 사회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결정들의 상호연관성 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국가·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다원화사회 및 서로 다른 인종·피부색·신념·성별·종교·능력·장애에 대한 개방성에 관한 지식, 정보자원 탐색 및 처리능력, 문제 식별 및 이해능력, 임파워먼트·미디어분석·글쓰기·현상에 대한 분석력 등의 다양한 시민적 기술, 지역사회봉사·시민적 참여·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된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포함한다.

한편, Morais와 Ogden(2011)의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구시민의식의 구성요인들을 고찰한 후 지구시민의식을 보다 간단명료한 개념구성체로 드러내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지구시민의식을 크게 사회적 책임, 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민연대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는 3개의 하위요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먼저, 사회적 책임은 지구정의(Global Justice)와 차이, 이타주의와 공감능력, 지구적 연결성과 개인적 책임의식으로, 글로벌 역량은 자기인식, 다양한 문화 간 소통능력, 지구화 관련 지식으로, 그리고 글로벌 시민연대는 자발적 결사체 참여, 정치적 목소리, 지구 시민행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김태준 외(2003)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시민의식을 범주화하고 측정하였는데, 지구시민의식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지구시민의식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개념 틀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시민의식을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핵심역량들(예, 수(數)적용 능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이 실제로 활용되는 생활 장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시민의식을 곧 이들 핵심능력들의 총화로 이해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시민의식을 총 4개의 범주(국가정체성,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책임의식, 참여의식)로 분류하였는데, 국가정체성은 국가의식, 국제관계, 역사의식을, 신뢰 및 가치공유는 신뢰, 기회균등,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권리·책임의식은 준법 및 규범준수, 도덕성 및 양심을, 마지막으로 참여의식은 보수적·사회변혁적 참여와 지역사회참여를 구성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지은림(2007)과 Cho와 Chi(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청년·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구성하는 범주와 하위구성요인들을 탐색하였고, 다양한 표집을 통하여 개념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시민의식은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의 총 7개 요인으로 범주화된다. 각

요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지구공동체의식은 세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존성을 이해하고, 지구화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을 말한다. 국가정체성은 각 국가가 지닌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 가치를 수용하고, 애국심을 갖는 것을 지칭한다. 사회적 책임과 사회참여는 시민의식을 가치신념과 행동차원에서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은 사회정의, 사회적 규범과 규정, 공익을 위한 양심적 삶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사회참여는 투표, 자원봉사, 정치적 행동, 지역사회참여 등 자신의 시민적 신념에 대한 행동적 대응을 의미한다. 사회참여는 지방, 국가, 지구사회에 걸쳐 다양하게 표출된다. 평등은 민주적 가치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적 요인들에 저항하는 지적, 윤리적 준비정도를 말한다. 신뢰는 함께 사는 사람들, 사회제도 등에 대한 믿음 정도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의식은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다(Cho & Chi, 2014: 3~5).

전술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들 연구는 지구시민의식을 국가정체성, 국제관계, 책임과 행동 측면에서의 시민의식, 기회균등이나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가치수용, 지구공동의 문제에 대한 이해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범주 안에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이슈들을 선별하여 하위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구시민의식을 지방(Local), 국가(Nation), 글로벌(Global)수준, 즉 글로내컬(Glo·na·cal)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는 지구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글로벌이라는 상위수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방과 국가라는 하위 및 중위수준과도 위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시민의식의 개념적 범주와 하위구성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지은림 및 동료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지은림, 2007; 지은림, 김해경, 문병원, 2014; 지은림, 선평식, 2007; Cho & Chi, 2014)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지구시민의식의 7개 구성요인(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을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도구적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에 관한 연구동향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이루어진 탈북청소년 대상 연구들(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김영하, 2010; 이기영, 2002; 최대식, 조은희, 2010)은 이들의 국내 유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주로 이들의 사회·심리·문화적 부적응을 이해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온 관계로, 이들의 지구시민의식 자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Cho & Palmer, 2015). 다만, 몇몇 연구자들이 지구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인인 국가정체성이나 민주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

먼저, 탈북이주민들의 국가정체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대식과 조은희(2010)는 청소년기에 탈북하여 북한에서의 삶,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삶, 남한에서의 삶을 모두 경험한 탈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가정체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가정체성을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개인이 갖게 되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로 규정하고 총 10명의 탈북대학생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탈북대학생들은 북한과 남한에 대하여 이중적인 소속감을 보였으며, 남한사람들과의 정체성 교섭에서는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의 철회를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의 남한적응전략은 북한다움을 아예 포기하거나 자신을 북한사람임으로 확실히 규정하거나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한편, 강진웅(2011)은 탈북이주민들의 정체성 분화를 1) 북한을 잊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동화형, 2) 남한과 북한을 모두 인정하며 한국시민으로 살아가는 통합형, 3) 불온전한 현재의 분열된 정체성을 유지하되 통일 이후의 미래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보하는 혼돈형, 4) 남한사람들 중심의 주류사회의 타자화와 사회차별에 의하여 사회적 타자가 된 이등시민 또는 비한국인이라는 시각을 갖는 저항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문화·학교적응기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면서 이들의 국가정체성을 탐구한 정진곤(2011)도 탈북청소년들도 성인인 탈북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이 북한사람인가 남한사람인가라는 소위 국가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북한이 싫어 남한으로 이주하였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접할 때나 북한에 두고 온 가

죽을 생각할 때마다 남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한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 국가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장문강(2008)도 이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출신임이 의도치 않게 밝혀질 경우 남한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기일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겪는 이 같은 경험은 남한사회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고, 결국 이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김신희와 이우영(2014)의 연구는 지구시민의식이 평등, 신뢰, 자유 등의 민주적 가치를 개념적 필수요소로서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탈북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체로 높았으며, 특히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정부에 의한 언론 독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탈북청소년들이 민주주의제도와 원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적응하면서 북한에서 형성된 특정 가치관이 약화되다가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북한식 가치관의 회복과 강화가 일어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형성하는 국가정체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경향 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지구시민의식을 구성하는 특정 요인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시민의식을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으로 확대하여 보다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탐구하고, 남한청소년들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대상을 선별하였다. 먼저 탈북청소년집단은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H특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142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에 개교한 H특성화중·고등학교는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정규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 정규학교로서 공식적인 학교유형분류명은 대안교육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율학교)이다. 입학학급은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6학급이고, 학급당 정원은 20명이며, 남녀공학이고,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H특성화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 특수성 상 한 달에 1~2회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신입생들이 정기적으로 편입하므로, 재학생들의 국내거주기간은 한 달부터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다양하다. 특히, 정규중등학교교육을 받는 전국의 탈북청소년 815명 중에서 142명(17.4%)이 H특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H특성화중·고등학교에서 추출된 연구표본은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는 탈북청소년들을 대변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남한청소년집단은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을 임의 선정하였고, 학년별로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급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택된 중·고등학교 4곳은 특수한 교육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일반계이며, 사교육열, 학습경쟁,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거나 과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은 탈북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과 유의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

설문에 응답한 탈북 및 남한청소년들의 분포

기준	구분	탈북학생(명(%))	남한학생(명(%))
성별	남자	77(54.2)	224(48.7)
	여자	65(45.8)	236(51.3)
학교급	중학교	50(35.2)	222(48.3)
	고등학교	92(64.8)	238(51.7)
전체		142(100.0)	460(100.0)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탈북 및 남한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관계자 및 설문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설문조사과정 등을 설명한 후, 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은림(2007)이 제작한 청소년용 지구시민의식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구공동체의식(3문항), 국가정체성(3문항), 사회적 책임(3문항), 사회적 참여(3문항), 평등(2문항), 신뢰(3문항), 다문화의식(3문항)의 총 7개 범주, 20개 하위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②별로 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다-⑤매우 그렇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 2

척도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지수
지구공동체의식	지구공동문제에 대한 관심 지구공동문제에 대한 참여 지구촌 활동에 대한 관심	3	.827
국가정체성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 우리나라 역사의 우수성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성	3	.682
사회적 책임	준법정신 사회정의 양심적 삶	3	.756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지수
사회참여	사회기여에 대한 책임 투표참여 사회봉사활동	3	.682
평등	사회평등 남녀평등	2	.750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공직자에 대한 신뢰	3	.851
다문화의식	타국가에 대한 우호성 타국가에 대한 개방성 타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3	.808
합계			20

3. 분석방법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지닌 두 집단의 잠재적 차이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지구시민의식을 측정·비교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집단 간 차이를 평균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지구시민의식척도가 탈북청소년집단과 남한청소년집단에 공히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χ^2 및 CFI, RMSEA, IFI, TLI 등과 같은 적합도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측정오차의 영향을 통제한 후 각 요인별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먼저 한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후 다른 비교 집단의 잠재평균의 상대적 수치를 추정한다(Hancock, 1997). 그리고 잠재평균의 비교 및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Cohen의 효과크기(d)를 활용하는데,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2이하면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 .5면 중간수준,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한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 7개 잠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값을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 통계량은 자료의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석에 투입할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준다.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지표가 0값을 가질 때 정확하게 정상분포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분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Curran, West and Finch(1996)는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4보다 크지 않으면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어 최대우도법을 통한 추정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인 표 3의 왜도와 첨도값은 상기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변수	문항	남한청소년집단				탈북청소년집단			
		평균	SD	첨도	왜도	평균	SD	첨도	왜도
지구공동체의식	지구공동문제에 대한 관심	3.37	.945	-.264	-.367	3.28	1.009	-.131	-.300
	지구공동문제에 대한 참여	3.17	.944	.041	-.447	3.24	.856	.490	-.002
	지구촌 활동에 대한 관심	3.23	.955	-.109	-.431	3.32	.951	.349	-.479
국가정체성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	3.80	1.019	-.525	-.515	3.49	.983	-.050	-.245
	우리나라 역사의 우수성	3.98	.933	-.673	-.095	3.71	.908	-.086	-.337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성	3.14	1.103	.020	-.664	3.52	.978	-.583	-.084
사회적책임	준법정신	4.22	.824	-.967	.855	4.19	.964	.304	-.968
	사회정의	4.10	.849	-.645	.011	3.90	.889	-.395	-.360
	양심적 삶	4.37	.772	-.978	.110	4.10	.948	-.730	-.554
사회적참여	사회기여에 대한 책임	3.90	.848	-.363	-.423	3.99	.903	-.465	-.455
	투표참여	3.85	.852	-.372	-.163	3.76	.875	.112	-.350
	사회봉사활동	4.18	.919	-1.001	.543	3.93	.945	-.659	-.395

변수	문항	남한청소년집단				탈북청소년집단			
		평균	SD	첨도	왜도	평균	SD	첨도	왜도
평등	사회평등	4.35	.786	-1.119	1.036	3.93	.880	-1.197	-.114
	남녀평등	4.32	.826	-1.078	.582	4.01	.953	-.701	-.478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2.29	1.008	.372	-.410	3.35	.975	-.142	-.090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2.43	.956	.232	-.370	3.27	.961	.196	-.140
	공직자에 대한 신뢰	2.67	.966	.124	-.297	3.40	.983	.182	-.289
다문화의식	타국가에 대한 우호성	3.29	.992	-.184	-.247	3.33	.892	.092	.086
	타국가에 대한 개방성	3.69	.903	-.291	-.342	3.58	.893	.152	-.168
	타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3.53	.944	-.168	-.276	3.42	.955	.440	-.345

* 평균 값은 5점 척도 기준: SD는 표준편차

2. 구인 동등성 검증결과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 7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한 기저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643.14$, $df=298$, $TLI=.896$, $IFI=.928$, $CFI=.927$, $RMSEA=.044$ 로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측정변수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chi^2=670.58$, $df=311$, $TLI=.897$, $IFI=.925$, $CFI=.923$, $RMSEA=.044$ 로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도출된 χ^2 과 자유도를 형태동일성 검증결과와 비교한 결과, χ^2 차이값은 자유도 차이 13에서 27.44로 나타나 .05수준에서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였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절편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동등성 검증 결과

검정	χ^2	df	TLI	IFI	CFI	RMSEA
형태동일성	643.14	298	.896	.928	.927	.044
측정동일성	670.58	311	.897	.925	.923	.044
절편동일성	925.50	331	.839	.876	.873	.055
부분 절편동일성	852.77	329	.858	.891	.889	.052
요인분산동일성	884.03	336	.854	.885	.883	.052

절편동일성 검증결과를 측정동일성 검증결과와 비교한 결과, χ^2 차이값은 자유도 차이 20에서 245.08로 나타나 .05수준에서 절편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적합도 지수도 $\chi^2=925.50$, $df=331$, TLI=.839, IFI=.876, CFI=.873, RMSEA=.055로 나타나 약간 나빠졌으므로, 연구자는 부분 절편동일성 모형을 설정하고 수정지수를 살펴보았다. 수정지수가 크게 나타났던 국가정체성의 1문항과 신뢰의 1문항의 절편동일성을 해제한 후 부분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 절편동일성 검증결과를 측정동일성 검증결과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χ^2 차이값은 자유도 차이 18에서 182.19로 나타나 .05수준에서 부분 절편동일성 가정도 기각되었으나, 절편동일성의 적합도 지수와 비교했을 때 $\chi^2=852.77$, $df=329$, TLI=.858, IFI=.891, CFI=.889, RMSEA=.052로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의 향상을 보였다. 모든 개별 문항으로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조민아, 고은영, 서영석, 2012) 본 부분 절편동일성 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3. 잠재평균 분석결과

집단 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 절편동일성의 가정이 충족되었으므로 연구자는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탈북청소년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남한청소년집단에 대한 잠재평균을 추정한 결과, 지구공동체의식과 신뢰를 제외하고 남한청소년 집단의 잠재평균이 높게 도출되었다. 국가정

체성, 사회적 책임, 평등, 신뢰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반면, 지구공동체의식, 사회적 참여, 다문화의식 변인은 남한청소년집단과 탈북청소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가정체성은 탈북청소년 집단보다 남한청소년 집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한 청소년들이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자아와 국가개념에 대한 혼란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책임과 평등에 대한 수준도 탈북청소년 집단보다 남한청소년 집단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신뢰에 관한 요소는 남한청소년들의 수준이 탈북청소년들보다 현저히 낮게 도출되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정부, 언론기관, 공직자 등을 비교적 신뢰하는 반면, 남한청소년들은 이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표 5

잠재평균 분석결과

변인	탈북청소년		남한청소년		효과크기 d
	평균(SD)	잠재평균	평균(SD)	잠재평균	
지구공동체의식	3.30(.799)	0	3.26(.817)	-.029	-0.05
국가정체성	3.60(.800)	0	3.64(.792)	.309***	0.54
사회적 책임	4.07(.788)	0	4.23(.653)	.173*	0.55
사회적 참여	3.90(.751)	0	3.98(.670)	.082	0.24
평등	3.97(.840)	0	4.34(.708)	.349***	0.91
신뢰	3.34(.853)	0	2.46(.836)	-.777***	-1.15
다문화의식	3.44(.775)	0	3.50(.806)	.055	0.13

* 평균 값은 5점 척도 기준; SD는 표준편차

다음으로 Cohen의 효과크기를 계산하여 잠재평균의 차이를 해석하고자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부분 절편동일성 검증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합도 지수가 현저히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수용 가능한 것

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효과크기의 값을 계산하였다. 효과크기 결과를 살펴보면, 평등과 신뢰는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고, 국가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은 중간크기를, 지구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참여는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V. 결론, 논의, 제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집단과 남한청소년집단의 지구시민의식을 측정·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구시민의식을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평등, 신뢰, 다문화의식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잠재평균분석결과를 보면,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은 지구공동체의식, 사회적 참여, 다문화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균값은 모두 5점 척도 기준 3점 초중반대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참여는 두 집단 모두 4점에 가까운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투표참여나 사회봉사 등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음을 말해준다.

반면,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 평등, 신뢰는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연구자는 각 요인의 평균값을 통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신뢰와 관련해서 두 집단 간에는 극명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탈북청소년들의 신뢰수준은 양호한 반면, 남한청소년들의 신뢰수준은 매우 낮았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정부, 언론기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신뢰하는 반면, 남한청소년들은 이들에 대한 불신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두 집단 모두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았으나, 남한청소년들이 탈북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도 사회적 참여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높았다. 특히 남한청소년들의 인식수준이 탈북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로 대변되는 시민의식의 가치신념과 행동차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들 중 일부는 추가적인 논의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먼저 신뢰와 관련해서 보자면, 정부, 공직자(정치인이나 국회의원 등), 언론에 대한 남한의 중·고등학생들과 2·30대 청년들의 신뢰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보고되었다(김태준 외, 2003; Cho & Chi, 2014).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신뢰수준이 양호함을 밝힌 연구도 소수이지만 발표된 바 있다(김신희, 이우영, 2014; 한만길, 강구섭, 이은구, 김일혁, 이향규, 김운영, 2013).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들 선행연구 대부분은 정량적 수치를 중심으로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신뢰수준을 드러냈을 뿐 그 정량적 수치 안에 어떠한 질적 변인들이 내재되어 있는지는 조명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탐구질문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1) 정부, 언론, 공직자에 대한 남한청소년들의 불신경향과는 달리 여러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탈북청소년들의 높은 신뢰의 원인은 무엇인가; 2) 탈북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남한사회로 적응한다고 볼 때, 정부에 대한 이들의 신뢰수준은 남한청소년들과 같이 하락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결과의 보충이 필요하다. 만일 양적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긍정적 신뢰가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의식 속에서(특히, 사회·문화·학교적응과정을 거치면서) 분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교육에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음은 평등에 관한 이슈이다. 사회와 남녀에 관한 탈북청소년들의 평등의식수준이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연구결과이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하면서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평등의식은 남한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탈북청소년들이 민주주의제도와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김신희와 이우영(2014)의 연구결과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시점에서 중요한 논의주제는 탈북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높은 수준의 평등의식은 억압, 통제, 감시가 심한 북한사회에서 획득한 이들의 경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이다. 탈북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사회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만일 이들이 평등을 마치 새로운 정착사회에 대한 적응이나 훗날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조건으로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밝혔듯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사회로부터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의 자신의 삶과 성공을 위하여 평등이라는 가치의 필요성에 집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후속연구들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적 가치의 배양을 지향하는 우리의 학교교육에도 유의미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술하였듯이,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와 학교에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의 국가정체성 혼란은 남한의 주류사회의 차별과 탈북이라는 사실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탈북청소년들이 갖는 국가에 대한 인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드러난 탈북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은 남한청소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인식 수준도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함께 섞여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학생들만을 위한 자율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남한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국가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덜 겪었을 수도 있다.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강진웅(2011)은 한국시민으로서 갖는 이들의 정체성 분화과정을 꽤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아쉽게도 미성숙한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을 다각도에서 접근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은 북한사회뿐만 아니라 탈출과정 중에 체류하였던 중국 등 제 3국에서 경험한 삶이 모두 녹아서 형성된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고, 남한에 정착한 후,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적응과정과 남한사람들 및 학교의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분화와 변화의 연속을 거듭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 측면에서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을 추적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45(1), 191-227.
- 교육부 (2014). 2014년 탈북학생 통계조사 결과 발표(7월 25일). 교육부 보도자료.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신희, 이우영 (2014).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17(3), 268-313.
- 김영하 (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21, 223-248.
- 김태준, 김안나, 김남희, 이병준, 한준 (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 의식 측정 연구**(RR2003-15-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심정보 (2014).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변화와 다문화교육 정책. **초등도덕교육**, 45, 183-208.
- 은지현, 조영하 (2015).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1), 51-77.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장문강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196-234.
- 전호윤 (2004). 지구시민 육성을 위한 글로벌문제의 수업구성 연구: Betty A. Reardon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43(2), 27-45.
- 정진곤 (2011). 북한 이탈 학생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4(1), 79-97.
- 지은림 (2007). 대학생용 지구시민의식 척도 개발의 타당화 및 관련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0(2), 151-172.
- 지은림, 김해경, 문병원 (2014).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한국·중국·한국거주 중국 대학생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24(6), 141-162.
- 지은림, 선광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 39(4), 115-134.
- 조민아, 고은영, 서영석 (2012). 잠재평균 분석을 활용한 학업태도 차이검증: 대학생 미성취 집단과 보통이상 성취집단 간 비교. **청소년학연구**, 29(2), 55-77.
- 최대식, 조은희 (2010).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2), 215-240.
- 한국교육개발원 (2014). 탈북청소년의 이해. <http://www.hub4u.or.kr/hub/edu/understand.do> 에서 2015년 5월 27일에 인출.
- 한만길, 강구섭, 이은구, 김일혁, 이향규, 김윤영 (2013).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IV)**.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ndrzejewski, J., & Alessio, J. (1999).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Retrived May 21, from <http://www.uvm.edu/~dewey>.
- Buckner, E., & Russel, S. (2013). Portraying the global: Cross-national trends in textbook's portrayal of globalization and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 738-750.
- Cho, Y. H., & Chi, E. (2014). A comparison of attitude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between Korean and US-educated Korean university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5(2), 213-225.
- Cho, Y. H., & Palmer, J. (2015). Becoming globalized citizens: North Korea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enrolled in South Korean schools. *A paper presented in 59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March 9*, Washington DC, USA.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s*, 58(1), 5-25.
- Falk, R. (1993). The making of global citizenship. In J. Brecher, J. Childs, & J.

- Cutler (Eds.), *Global visions: Beyond the new world order*(pp.39-50). Boston, MA: South End Press.
- Hancock, G. R. (199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of hypothesis testing of latent variable mean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91-105.
- Howard, M. (2006). Comparative citizenship: An agenda for cross-national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tics*, 4(3), 443-455.
- Morais, D., & Ogden, A. (2011).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lobal citizenship scal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5), 445-466.
- Myers, J. (2010). To benefit the world by whatever means possible: Adolescents' constructed meanings for global citizenship,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3), 483-502.
- Oxfam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me. (1997).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ord: Oxfam.
- Pigozzi, M. (2006). A UNESCO view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al Reviews*, 58(1), 1-4.
- Schattle, H. (2008).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llustrations of ideological pluralism and adaptation,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3(1), 73-94.

ABSTRACT

Measuring the 'global citizenship' levels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Cho, Youngha* · Jung, Jooyoung**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and rigorously compare the 'global citizenship' levels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xperienced South Korean formal secondary schooling,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We defined global citizenship in this study as being composed of the following seven factors: global awareness, national identity,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participation, equality, trust, and multicultural awareness. We then surveyed 142 students at H specialized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were founded for the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420 South Korean students from 4 second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latent mean analysi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udent groups regarding global awareness, social participation, and multicultural awareness. However, these two groups of students showed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with regard to national identity, social responsibility, equality, and trust. Based on these findings, a number of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the benefit of the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for further relevant research.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tent mean analysis

투고일: 2015. 6. 10, 심사일: 2015. 8. 17, 심사완료일: 2015. 9. 2

* Kyung Hee University, the first author

** Kyung Hee University, the corresponding author, deu1487@khu.ac.kr